

테마칼럼

이성체제

정치프리즘

경제의 눈

문화 향기

오운을 생각하며



박영택

<미술평론·경기대교수>

“

화가와 작품이 필요하고 그것이 여전히 의미 있는 이유는 그 누구도 아닌 오직 그만의 시선과 감각, 인성을 만나기 때문이다. 예술만이 그러한 개별성과 접촉시킨다

”

얼마 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오운의 추모전이 열렸다.

최근 다시 오운의 작품을 몇 점 더 보았다. 가나화랑에서 열리고 있는 청관재소장품전에 나온 작은 판화가 그것이었다. 불수록 그 소품들은 소박하면서도 독자한 체취로 절여져있다. 좋은 작품은 한 눈에 그.그너만의 감각과 체취를 아ழ하게 안긴다.

41살의 생을 가버려 떨고 간 오운은 80년대 미술의 핵심이었다. 간결한 구도에 단단하게 응축된 형상을 뜨거운 칼 맛으로 새겨놓은 그의 판화를 대학 시절 즐겨 읽던 책의 표지에서 처음 접했다.

오운 역시 그렇다. 그것은 타고난 것이기도 하고 삶의 지향에서 가능하기도 하다. 그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삶을 고스란히 그림으로 육화해놓고 자신의 인상, 톤으로 화면을 조율한 이들이었다. 오운은 작업에 대해 “자기가 그냥 사는 겁니다. 진짜 삽시다”라고 말하곤 했다. 나는 그 말을 오래도록 기억한다.

그러니까 좋은 작가란 좋은 작품을 앞세우고

좋은 작가란

박노해의 ‘노동의 새벽’같은 시집의 표지 말이다. 좋은 그림은 그 누구도 아닌 오직 그 사람만의 톤으로 절여져있다. 이중섭이나 박수근, 장욱진, 권진규 같은 작가들이 그럴 것이다.

오운 역시 그렇다. 그것은 타고난 것이기도 하고 삶의 지향에서 가능하기도 하다. 그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삶을 고스란히 그림으로 육화해놓고 자신의 인상, 톤으로 화면을 조율한 이들이었다. 오운은 작업에 대해 “자기가 그냥 사는 겁니다. 진짜 삽시다”라고 말하곤 했다. 나는 그 말을 오래도록 기억한다.

그러니까 좋은 작가란 좋은 작품을 앞세우고

보다는, 목소리가 크고 주제나 방법론에 의미를 부여하기 보다는 스스로 좋은 감각과 취향과 톤을 지닌 몸을 만들어가는 것, 그렇게 사는 일이다.

석고상을 외워 그리려는 현재의 입시제도 속에서 길들여진 학생들과 그런 교육의 연장선에서 배출된 작가, 작가지망생들에게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은 그들의 취향과 감각, 삶이다. 작업과 함께 살지 않는 데서 그만의 톤 역시 부재하다. 자신의 온 몸을 뽐내듯 갈아 만든, 한 개인의 독특한 개인성에서 우러나오는 체취 같은 감각이 부재할 때 그 자리로 밀려드는 것은 습관화된 그리기나 조악한 취미에 유사한 작업뿐이다.

대부분의 작가들이 바로 그러한 인테리어를 제작하는데 여념이 없다. 인물과 풍경, 정물 혹은 추상 등이 죄다 공예적으로 매만져져 나오는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미술행위라는 것들이다. 수많은 작가들이 존재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아티스트, 그만의 인상과 톤을 지닌 화가는 부재하다.

왜 그럴까? 미술이 그 사람만의 감각, 인성의 무게와 두께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이거나 이를 외면하기 때문이다. 그가 인간이라는 것은 그가 ‘감각적’이라는 말이기도 하다. 인간이 의식적인 존재인 것은 감각 기관을 지니고 있기에 가능하다.

살아있다는 것은 그가 감각기능을 갖고 있고

그 감각으로 인해 모든 것을 느끼고 있다는 예기다. 알다시피 문화와 예술은 그 감각기관 자체를 매우 예리하게 가다듬는 일이기도 하다. 미술이라는 것은 ‘감각을 자극한 생의 환과 리듬을 포착하여 관자의 감각을 통해 그 힘을 다시 재주입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대의 삶은 대개 직접적인 삶의 감각을 피해 활랑하고, 단순하고, 엄숙하고, 금욕적이며, 사무적인 일상으로 찌그러지게 만들기도 하고 상투적인 감각만을 기형적으로 극대화한다.

그만의 취향을 만나다

따라서 동시대의 한국문화, 미술은 감각의 둔화와 상실, 혹은 기형적 감각의 극단 속에서 유통한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대다수 작품들이 바로 그러한 영향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때 세상 오운 같은 이를 떠올리게 된다. 박수근이나 장욱진, 권진규 역시 그 뒤를 잇는다.

화가와 작품이 필요하고 그것이 여전히 의미 있는 이유는 그 누구도 아닌 오직 그만의 시선과 감각, 인성을 만나기 때문이다. 예술만이 그러한 개별성과 접촉시킨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성장-저고용 악순환 늪에 빠진 지역경제

광주·전남지역 경제가 좀처럼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10년 동안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기업투자 부진-일자리 부족-양극화 심화라는 악순환에 빠져드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역환경이 이전과 최근의 광주·전남지역 경제상황 비교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역경제 성장률은 광주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1990~96) 8.7%에서 이후(2000~2006) 5.6%로 크게 둔화됐다. 전남은 7.9%에서 3.2%로 무려 4.7%포인트나 추락해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 같은 저성장은 기업의 투자부진으로 이어져 설비와 건설투자 역시 10% 이상 줄었다.

저성장, 투자부진 현상이 뚜렷해지면 실업률은 광주가 3.1%에서 4.3%로, 전남은 1.3%에서 2.4%로 상승했고, 고용창출력도 눈에 띄게 하락했다. 성장률 둔화, 양극화 심화, 고용 없는 성장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이 지역경제 지표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저성장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성장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 성장동력은 기업 투자 활성화가 전제돼야 얻을 수 있다. 투자가 이뤄져야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양극화 현상도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이 지방에 투자하게 하려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투자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기업유치를 위한 지금까지의 백화점식 시책은 재검토해야 한다. 산발적 추진은 오히려 부담과 낭비만 초래하기 때문이다. 대신 선택과 집중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취업과 연결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지자체, 기업, 근로자, 주민의 유기적 협력관계가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저성장-저고용의 벽을 뛰어 넘을 수 있다.

盧-姜 청와대 ‘민생회담’ 성과 기대한다

노무현 대통령과姜대통령 한나라당 대표가 9일 ‘민생회담’을 갖는다. 대통령과 야당인 원내 제1당 대표의 회담은 전남 자체만으로도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의제도 개혁문제 등을 제외하고 민생현안에 맞춰져 있다. 경제 및 민생이 심각한 현실에서 회담 결과가 주목된다.

정부가 야당과의 대화에 인색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지난 4년간 노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와 직접 회담한 것은 두 차례에 불과했다. 대통령은 지난 2003년 10월 최병렬 대표와 만나 대통령 재신임 문제를 언급했고, 2005년 9월 박근혜 대표에게 대언정을 제의했다. 두 차례 모두 대통령이 회담의 주도권을 잡았을 뿐 국정 전반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없었다.

노와 국민을 위해서라면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의제에 상관없이 만나지 못할 이유는 없다. 국민들은 청와대와 여야 등 정치권이 서로 만나 국정을 심도있게 논의하길 바라고 있다. 청와대

와 한나라당은 이번 회담이 어떻게 성사된 만큼 민생현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해 국민들의 답답함을 풀어 주어야 할 것이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은 한계에 달했다.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의원들의 잇단 탈당으로 창당 3년3개월여만에 분당 위기를 맞으며 원내 제2당으로 전락했다. 한나라당은 대권을 눈앞에 둔 정세정변 논란 등 대선 예비후보간 경쟁에 몰두해 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제 살길을 찾고 있는 것이다.

‘민생회담’이 성과를 거두려면 자체와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필수적이다. 자기의 주장만 고집해서 회담은 결렬될 수밖에 없다. 노 대통령은 여야 정파를 떠나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 주기 바란다. 강 대표도 정치현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연계해서 안될 것이다. 회담을 통해 대결과 갈등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기적’을 만들어 내길 기대한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료 칼럼 김영조. 전직 DJ였던 김모(53)씨는 젊었을 때부터 모자를 즐겨 썼다. 나이가 들면서 차츰 머리카락이 빠져, 지금은 대머리 현상이 나타나 모자를 벗지 못하게 됐다. 이 때문에 최근 레스토랑을 개업했지만, 모자를 쓴 채로 카운터에서 손님을 맞고 있다. 김씨는 “머리를 차마 보여 줄 수 없어서 모자를 눌러쓴 채 눈 인사만을 해야 했다”고 고민을 털어놓았다.

대머리현상, 모발이식으로 자신감 되찾자

회사원 최모(40)씨는 머리카락이 빠지면서 조금씩 우울증에 빠졌다. 30대 중반까지만 해도 “남들도 조금씩 빠지는 데”라며 별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해졌다.

급한 대로 벗겨진 머리를 가발로 감았다. 회사 동료에게는 철저히 숨겼다. 동료와 추구를 하거나, 함께 목욕탕을 갈 때면 “집안 문제가 있다” “몸이 안 좋다”며 자리를 피했다. 동료의 따가운 눈총을 받을 때마다, 최씨에게는 스트레스가 됐다. 자신이 대머리라는 사실이 알려질까봐 항상 불안하고 초조했다.

최씨는 병원에서도 간호사를 모두 밖으로 내보내고 진료실 문을 잠근 뒤에야 가발을 벗을 정도로 매우 예민했다. 대머리 현상보다 정신적인 불안증세가 더 심각해 보였다. 빠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곧바로 모발이식 수술을 했다. 단계적으로 3천 가닥의 모발을 이식받은 최씨는 서서히 불안감에서 벗어났다.

버스노선 재개편 환영하나 더 세심한 주의를

지난해 12월 21일 준공영제 도입과 노선개편 이후 제기된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시에서 2월 8일 노선 조정 시행에 들어갔다. 내가 살고 있는 상무지구 해방한신 아파트에도 시민들의 강력한 민원제기로 기존에 있었으나 없어진 버스정류장이 부활하고, 4개의 조정노선이 배정되었다. 뒷늦게나마 주민의견이 반영돼 위안이 되었으나, 개편 첫날 비가오는 출근길 환담한 경우를 접했다

버스를 올라타자 버스 기사들이 전부 방향이 다르다고 하면서 내리라고 하는 것이었다. 버스 정류장 방향 표시가 거꾸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는가? 일본에서는 외국인도 쉽게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안내 표시를 해놓는데, 너무 무심한 행정을 펴는 것 같다. ▲박강·광주시 서구 치평동

독자마당. 선택진료제 민원발생 최소화할 보완책 마련해야. 대부분의 종합병원급에서는 특진으로 불리는 선택진료제가 성행하고 있다. 원래 취지대로 운영되면 그만대로 납득을 할 수 있으나 환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병원의 수입증대에만 초점을 둔다면 차라리 없애는 편이 낫다.

고속도로 통행료 규정 속지해야 불이익 피한다

고속도로를 이용할때 중 고속도로 입구에서 통행권을 뽑은지 24시간이 경과한 후 영업소에 도착한 경우가 간혹 발생한다. 출발시에는 여러대의 승용차로 출발했다가 한 장소에서 다시 한 대의 차량으로 운행할 경우 대부분 고속도로 휴게소 등지에 차량을 주차한 뒤 하루 혹은 며칠이 지나서 톨게이트에 진입하는 경우이다.

이럴 경우 도로공사에서는 도착한 영업소를 기준으로 최장거리요금을 징수하게 된다. 통행권의 유효시간은 발행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며, 유효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당해 영업소에서 가장 먼 거리로부터 최단경로로 통행한 것으로 추정하여 최장거리요금 수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내빈 위한 졸업식 아닌 학생들의 행사 만들기

졸업 시즌이다. 졸업식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다. 단상 위에는 지역 기관장들과 교육계 인사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동문회장 등이 근엄하게 자리잡고 앉아 졸업생을 내려다보고 있다가 의례적인 축사를 한다. 졸업생들은 행사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눈치다. 재학생들은 수업시간을 할애하여 졸업식 예행연습까지 한다고 한다. 아무래도 졸업생이나 재학생들이 초대되는 내빈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졸업식을 하

는 것 같아 씁쓸하다. 졸업식에서 최고의 주인공은 어디까지나 졸업생 당사자들이다. 이제 졸업식 모습도 형식적인 것에서 탈피해 졸업생과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 재학생들이 진정으로 어우러져 석별의 정을 나누는 모습으로 변화해야 한다. 졸업생 모두가 영광스럽게 졸업장을 수여받는 기쁨과 추억으로 남을 즐겁고 신명나는 졸업식 한마당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항화·광주시 북구 우산동

無等鼓. '위터 월드'(1995, Water world)는 기온 상승으로 북극의 빙산이 녹아내려 온통 물에 덮여 있는 미래를 상정(想定)한다. 마지막 남은 육지 '드라이 랜드'(Dry land)를 찾아 떠나는 돌연변이 마린(캐빈 코스트너)과 물에 지도가 새겨진 소녀 이블라가 온갖 고난을 극복하는 이야기다. 영화는 흥행에 실패했지만, 사상 최대 세트록 기록된 500m·무게 1톤의 인공섬을 만들어 화제가 됐다.

Table with 2 columns: 光 州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